' 실용파 ' 의원 포진 - SOC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 관심 '

- 하반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구성, 건설산업 활성화 물꼬 트나 -

지난 달 20일 여야는 17대 국회후반기를 이끌고갈각상임위위원을확정하였다. 건설업체들의관심은당연히' 건설교통위원회' 이다. 상임위 중에서도 최고 노른자위에 속하는 건교위.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또 각 지역의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준다. 이번에는어떤사람들일까?

확 바뀐 건교위, 부드러워지나

먼저 건교위 구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체 26명의 건교위 위원 중 전반기에도 건교위에 있었던 사람은 10명도채안된다. 여당인열린우리당은위원장을 제외하면 11명 중 6명이 교체됐다. 대규모이다. 교체된 면면을 보면 확실히 부드러워진것을알수있다. 전반기건교위간사를맡았던이호웅위원이후반기에는건교위위원장이됐다. 간사를맡게된주승용의원과 박상돈, 서재관, 장경수, 정장선 의원

이호웅 위원장

등모두6명이후반기에도건교위에남게됐다. 그리고 전경제부총리였던 홍재형 의원이후반기에상임위를국방위에서건교위로옮겼으며, 강길부, 문학진, 유필우, 정성호, 한병도 의원 등 6명이 새로 여당의 건교위 위원이됐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가장 신경 쓴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또 부동산 관련이슈가최근몇년간가장시민들의관심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건교위 위원 대거 교체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시사하는 바 크다. 지방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때문에그랬다는여당의자성이많았는데확실히신경쓰는눈치다. 여당관계자는 " 아무래도 전반기 상임위 배치와 지역 안배 등이고려된것같다 "면서" 정책적연속성과 보완할 점은 보완한다는 것도 검토됐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참패와부동산정책의수정가능성도교체의한이유 "라며대거교체의분위기를전했다.

건교위 위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정장선의원은최근한라디오와가진 인터뷰에서' 현장을다니면서(8 · 31대책등

주승용 간사

윤두환 간사

강길부 위원

문학진 위원

박상돈 위원

서재관 위원

유필우 위원

장경수 위원

정성호 위원

정장선 위원

한병도 위원

홍재형 위원

으로) 일부선의의피해자가생길수있다는 것을느꼈다 ″며“ 1가구1주택종부세대상자 중 수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시킨다든지 부동산이 실거래로 과세되는경우가많아져거래세를낮추는것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 부동산 투기를 막는 8 · 31대책의 근간을 흔든다면 부동산 전체가 요동쳐서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며 선을그었다.

그렇지만 건교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행보는 벌써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3일 건교위 여당 의원들이 원 구성 후 처음 찾은 민생 현장은 바로 공인중개사와 건설업계다. 공인중개사들과 건설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는 전셋집 주민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와는 다르다. 여당의정책초점이부동산거래활성화와 지방 분양 시장 대책, 그리고 건설산업 활성화에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크다. 상반기에는 규제와 안정이었다면 후반기에는 시장 활성화와 세금 부담 해소에 무게중심이옮겨가고있다.

한나라당도정희수, 허천의원등몇명을 제외하고는모두새 얼굴이다. 간사는산자위에서 건교위로 옮겨온 윤두환 의원이 맡았다. 윤 의환은 산자위에 있을 때‘ 대수도론 에대한관심이많았다. 울주가지역구인 윤 의원으로서는수도권의 사업 규제 완화는 곧바로 지역구에 대해서는 배신으로 이어질수가있다.

그렇지만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는 지난 전반기에 듣기 쉬운편이아니었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이슈에있어공급확대를대책으로내세운한나라당은열린우리당의정책보다는관심을덜받은것이사실이다. 정책의우열을 떠나 공급 확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유권자들이 당장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지만실제행정부에영향을주는여당은세금 폭탄과재건축규제 등수요억제책을부동산가격급등해결책으로들고나와실제유권자들의재산과의사결정에당장큰영향을주었다. 하지만여당이지난지방선거에서참패하면서결과적으로한나라당의부동산 정책은 인정을 받은 모습이 됐다. 후반기 건교위에서도 한나라당은 충실히 ‘ 공급확대 ’라는부동산정책당론을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실용파 의원들의 부상

여당 건교위 소속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실용파 의원들의 부상이 관심이다.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대표적인 실용파의 한 사람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이 한창 뜨거울 때“ 분양원가공개가소비자와건설업자간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며“ 장기적으로주택 공급 감소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고 반대했다. 노후화돼 가는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건축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또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박상돈 의원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인 것으로알려져있다.

국방위에서 건교위로 상임위를 옮긴 전 경제부총리 홍재형 의원은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여당 내에서눈에띄는실용파로꼽힌다. 정무위에서 건교위로 갈아탄 강길부

김석준 위원

김재경 위원

박승환 위원

유정복 위원

이성권 위원

이인기 위원

이재창 위원

이진구 위원

정희수 위원

허천 위원

이낙연 위원

이영순 위원

정진석 위원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이다. 공인감정사로 1971년건설부수자원국 사무관으로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에는대통령건설교통비서관을 지냈으며 1998년에는 한국감정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길부 의원도 홍재형 의원과 함께당내실용파로분류된다.

정성호의원, 유필우의원, 서재관의원등도실용주의적성향이강한것으로전해지고 있다. 다만, 건교위상임위원장을맡은이호웅의원은개혁파로분류된다. 이위원장이외에는 조선일보 기자에서 1988년 한겨레 창간멤버로활동한문학진의원이개혁파로 꼽힌다. 문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에서 후반기에는 건교위로 상임위를 바꿨다. 후반기에도 건교위에 남게 된 장경수 의원은 당내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를 할 정도며「부동산학개론」이란책을쓰기도했다.

상반기건교위에서여당의부동산정책을 이끌었던 개혁파는 상당수 물러났다. 부동산기획단장을맡았던이강래의원은환노위로 상임위를 옮겼고, 기획단 간사로 활동했던 윤호중 의원도 복지위로 바뀌었다. 상임위원 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건교위위원들이실용파로많이채워졌다는 것은 여당 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더욱이 5 · 31 참패의 아픔이 큰 여당으로서는 부동산 정책 손질에 가장 큰 신경을쓸것으로전망된다.

SOC 활성화로일자리 창출

후반기 원 구성을 보면 부동산 정책 외에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국회나정부나경제와민생을부르짖는마당에' 일자리 는후반기국회나노무현정부에게가장큰관심사이다. 그리고일자리창출에는 건설업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교위 위원들 중에는 SOC 투자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이 꽤 많다. 물론 SOC 투자가결국지역구개발사업으로이어진다는 점에서각의원들의파워를엿볼수있는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후반기 건교위에서는 일자리창출과관련해관심이크다.

보건복지위에서건교위로자리를옮긴유필우의원은벌써보건복지위시절국민연금을활용해 SOC 투자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 SOC 투자가채권투자수익률을넘어서는안정적인수익원이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고 주장하며 연기금의 SOC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으로 김포군수를 지낸 바 있는 유정복 의원도 경인운하사업재개에관심이크다. 유의원은수자원공사의 곽결호 사장을 출석시켜 " 경인운하가 환경 문제는 없고 경제성 문제인 만큼 재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주 의원은" 복지, 국방비 예산은매년늘리는데SOC 예산은줄고있다 며 "백년이상SOC 시설확충과정비를해온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 고강조하였다.CJ

박성태
한국경제TV 기자